

잡아함72. 지법경

날짜: 3월 8th, 2024

출처: <http://www.dhamma.kr/wp/?p=17682>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알아야 할 법과 지혜와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 말하리니, 자세히 듣고 잘 사유하라. 너희들을 위해 설명하리라.

어떤 것이 알아야 할 법[所知法]인가? 이른바 5수음(受陰)이다. 어떤 것이 다섯 가지인가?

색수음 · 수수음 · 상수음 · 행수음 · 식수음이니, 이것을 알아야 할 법이라 하느니라.

어떤 것을 지혜[智]라 하는가? 탐욕을 항복 받고, 탐욕을 끊으며, 탐욕을 뛰어넘는 것이니 이것을 지혜라 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智者]인가?

그는 곧 아라한이다. 아라한에게는 사후(死後)에 내세(來世)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후(死後)에 내세(來世)가 없는 것도 아니고, 사후(死後)에 내세(來世)가 있는 것도 또한 없는 것도 아니며, 사후(死後)에 내세(來世)가 있지 않음도 또한 없지 않음도 아니어서, 넓게 말하면 한량이 없어서 모든 수(數)9)가 아주 소멸하였다.

이것이 알아야 할 법과 지혜와 지혜로운 자에 대한 설명이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듣고 기뻐하며 밟들어 행하였다.

본 문서는 dhamma.kr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